

2026년 2분기 운영위원회 회의록

- 일 시: 2026년 6월 29일(월) 10:30
- 장 소: 서귀포시가족센터 2층 교육실

서귀포시가족센터

2026년 2분기 운영위원회 회의록

2026년 2분기 운영위원회 회의록

1. 운영위원회 개요

가. 일 시 : 2026. 6. 29.(월) 10:30

나. 장 소 : 서귀포시가족센터 2층 교육실

다. 참석자 : 8명

구분	성명	소속기관	자격	비고
운영 위원	송은경	서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 다문화가정 및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	
	송진아	서귀포시청 여성가족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건강가정, 다문화가정 사업 업무 담당 공무원	
	이은하	서귀포시가족센터	가족센터장	
	안혜순	서귀포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건강가정, 다문화가정 및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	
	오한숙희	(사)누구나	공익단체 추천자	
	박명일	제주국제순복음교회	후원자 대표	
	허용철	대아건설 (대표)	지역주민 대표	
	부세영	서귀포시가족센터	센터 직원 대표	

라. 주요내용

- 1) 2026년 2분기 주요 추진실적 보고
- 2) 2026년 3분기 주요 추진계획 보고
- 3) 2026년 사업별 예산 및 후원금품 사용현황 보고

마. 안건

- 1) 2026년 가족문화축제 예정, 다양한 홍보 및 참여 독려
- 2) 서귀포 다문화엄마학교 총동문회 프로그램 운영

바. 기타 안건 논의 및 질의응답

- 1) 시설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 2)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 3) 아이돌봄지원사업 평가 실시
- 4) 2026년 가족문뜰축제 개최
- 5) 복지정책과 및 여성가족과 현장점검 실시
- 6)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예정
- 7)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평가 예정
- 8) 서귀포시가족센터&서귀포중학교 MOU 체결

2. 회의 내용

가. 개회 및 성원보고

부세영 사무국장이 운영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고 송은경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다.

나. 전차 회의록 보고

부세영사무국장이 전차 회의에서 취업규칙 및 시설운영규정 변경 심의 및 자문받은 내용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승인 완료되어 최종 변경되었음 보고드리며, 그 외 주요 안건은 서면 참고를 요청하였고, 전 참석 위원들의 동의로 전차 회의록이 통과되다.

다. 운영현황 보고

부세영사무국장이 인력 운영현황으로 신규 입사자 9명과 퇴사자 6명을 보고하며, 입사자 중 육아 휴직 대체인력에서 사례관리 계약직으로 보직 변경,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종사자와 방문지도사 선생님이 정년으로 퇴직하고 있음을 보고하며, 신규 입사자 선생님들을 소개하다.

라. 2026년 2분기 사업실적 보고

부세영사무국장이 2026년부터는 한가위의 요청으로 부부, 부모 교육주간을 정하여 이번 달부터 매 월 셋째 주에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문화가족관계향상지원으로 3회/ 629명, 42.8% 달성율로 이번 가정의 달 프로그램으로 5월 문밖축제를 최저예산으로 610명의 참석으로 높은 호응이 있었다. 제5기 엄마학교에서는 8월 11일 검정고시 예정이며, 이번 기수에서 높은 참여도가 있음을 보고하다. 블리스어린이 합창단이 7월부터 진행될 예정으로 외부와 연계되어 평화의 날 행사에 공연이 예정되어 있고, 신규 단원을 추가 모집 중에 있다. 공동육아나눔터사업에서도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있으며,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한국건강진흥원의 요청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운영위원회 회의 회기수가 4분기에서 2분기로 줄어 상, 하반기에 나누어서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하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의 경우 106명의 아이돌봄사가 채용되었지만, 현재 개인사정 및 휴직으로 103명의 아이돌봄사가 남아있음을 보고하다.

아동발달서비스의 달성도가 낮은 이유는 제주시 2명, 서귀포 2명의 아동발달지도사의 채용 계획이었지만, 제주시 아동발달지도사의 경우 방문수업의 거리가 멀어서 1명이 채용이 안된 상태이고, 채용된 1명의 경우도 거리상의 사유로 퇴사 예정이어서 수업이 힘든 상태이다.

마. 2026년 3분기 주요사업 추진계획 보고

다문화가족성장지원은 서귀포도서관과 연계하여 하반기에는 작품 전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문화엄마학교 참여하는 분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여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8/29일 졸업에 맞춰 작품을 전시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다문화가족관계향상지원에서 한가위 음식 만들기과 명절에 대한 프로그램을 가질 예정이다. 찾아가는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에서 우크렐레를 배우는 교실을 대정, 표선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12월 다문화화합한마당에서 공연도 할 예정이다. 맞벌이가정 일가정양립지원으로 오랜기

간 해오고 있는데, 찾아가는 어린이집에서 보드게임, 요리활동, 체육활동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연령별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다문화엄마학교는 8/29일 졸업식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며, 2025년에 외국인 주민지원프로그램으로 행안부에서 상을 받은 이력이 있다. 진로설계지원으로 다문화 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진로 설계 상담프로그램으로 멘티, 멘토 프로그램으로 제주대학교 학생을 멘토로 모셔서 진행하고 있으며, 성산에 거주하는 아이들이 2시간 가까이 버스를 타고 센터로 찾아올 정도로 열정적으로 아이들의 만족도가 높다. 7월, 8월에는 여름방학 특강으로 디지털 새싹사업으로 드론 파일럿 체험을 할 예정에 있다.

다문화 결혼이민자, 가족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 자조모임, 자율방범대 활동이 활성화되어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특화프로그램으로 '작가와 산책길'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서귀포를 대표하는 작가 현중화, 변시지, 이중섭 작가에 대해 배우고, 체험, 견학하는 프로그램을 할 예정이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조기적응프로그램으로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국적 취득을 위한 과정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 매주 월, 수, 금에 운영하고 있으며 저희가 위탁기관으로 별도 운영되고 있다.

오한숙희위원) 점점 사업이 많아지고 다양화되면서 세분화되고 있어, 센터의 역사가 오래된 만큼 이제 모세혈관 같은 그런 발전이 있는거 같아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부모역할지원 사업에서 조손가정도 꽤 있는데, 요즘 부모라는 표현은 안하고 양육자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편부모, 결손가정이라는 표현에서 한부모라는 말로 바뀌었듯이, 센터에서 선도적으로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단어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조손가정은 가족관계에 포함이 안되어 있는 것이다.

이은하센터장) 성평등가족부에서 장관님과의 면회를 통해 내려온 부분이, 이제는 부모교육, 부부교육, 조부모교육 이런 교육을 하나의 교육으로 진행하여 매월 셋째 주간을 가족관계교육주간으로 하자고 하고 있어서, 이제 부모역할지원, 부부역할지원이 없어질 예정이다. 하반기에 공문이 내려와서 이제 그런 표현이 없어질것 같다.

오한숙희위원) 10쪽 다문화엄마학교 자녀성장지원과 관련하여 다문화학교와 연계하여 어떻게 진행이되는지 궁금하다.

이은하센터장) 다문화엄마학교를 하면 엄마들이 자녀들과 같이 오게 되는데, 엄마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동안 모인 아이들은 자녀성장지원으로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된다. 같은 시간인 10시~12시까지 도서관과 연계하여 엄마들이 공부하는 동안 아이들이 유익한 교육과정을 진행하게 하고 있다. 이번에 많은 미술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오한숙희위원) 다문화 엄마들에게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던 것이 없어서 아쉽다.

이은하센터장) 올해는 저희 법인에서 하는 행사로 다문화 엄마들을 대상으로 시화전을 진행하였다. 2일간 짧게 진행한 것이지만, 작가님을 모시고 다문화 엄마들이 시를 쓰고, 그림으로 표현하게 하였으며, 이번 다민족문화제에서 전시하였으며, 저희 센터 이용하는 치크님이 대상을 받았다.

오한숙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다문화 엄마들에게 너무 학습 위주로 프로그램이 진행이되는데, 문화예술, 숨은 재량도 발견할 수 있는 예술활동을 했으면 한다. 예술활동이라는 것이 오히려 뇌를 더 자극해서 학습효과도 높일수 있는 것이고, **빽빽한** 커리큘럼 사이에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해 본

다.

결혼이민자취업지원에서 관광가이드반을 건의해 본다. 최근엔 k-드라마를 보고, 촬영지가 어딘지 검색해서 찾아오는데, 일본-제주-부산-명동 이렇게 4곳을 배낭메고 단기로 젊은이들이 여행한다고 한다. 취업지원은 24세까지이니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이중국적, 이중언어를 부지런히 배우게 하여서 관광가이드도 할 수 있고, 그 나라의 외교관으로도 갈 수 있다. 여기 가이드는 누구보다 지역주민이 더 잘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해서 제안드리는 것이다.

바. 사업별 예산 및 후원금품 사용현황 보고

2분기에는 추가경정을 하지 않아서 예산 변동사항은 없으며, 사업별 예산과 후원금품 사용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길 바란다.

사. 안건 논의

안건 논의 부분은 참고해 주시길 바라는 부분으로 먼저 다문화엄마학교 총동문회 프로그램으로 200명 내외의 인원을 예상하고 있다. 이번 9월 5일(토)에는 2년에 한 번 개최하는 가족문화축제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번에는 제주fc와 연계하여 월드컵경기장에서 축구가 열리는 날 진행될 예정이다. 예상 인원은 굉장히 많이 예상하고 있는데, 축구 경기시 최소 6천명이 오는데, 축제 참가인원을 3천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예산은 2,000만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오한숙희위원) 오전시간에 이루어지는지 질의하다.

이은하센터장) 축구경기가 7시30분이어서 2~3시에 시작하여 경기 시작 전에 종료될 예정이다.

아. 기타 안건 논의 및 질의응답

시설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매분기 노사협의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노측과 사측 각 4명씩 종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접수하고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개선해갈 부분을 논의하고 있다.

6월13일 세계인의날 기념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표창으로 박혜림 팀장과 성정미 대리가 수상하였으며,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으로 4월 29일 워크숍을 실시하여 힐링과 종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차후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논의하고 진행하였다.

오한숙희의원) 다음번 워크숍 장소로 '삼달다방'을 추천하다.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다 소진되면 가는 힐링장소로 번아웃된 활동가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장소이다. 숙소와 산책길 코스, 무엇보다도 힐링프로그램을 요청도 가능하고,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도 있다. 교육비도 무료이며, 장소 이용료만 조금 부담하면 외부 음식도 반입가능, 바비큐도 가능한 열린 공간이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1년에 한번 평가를 실시하는데 5월 14일 평가가 진행되었고,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2026년 가족문뜰축제는 600명의 넘는 참여인원으로 성황리에 잘 마무리되었다.

이은하센터장) 이번 가족문뜰축제는 즉흥적으로 가정의 달을 맞아 진행되었던 것인데, 선거로 가족행

사가 제한되어 있어서, 저희들끼리 작게 해보려 기획한 부분으로, 후원금의 일부를 사업비로 조금 사용하였다. 가족문화축제를 격년으로 운영하는데, 축제를 안하는 해에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6월,7월에는 현장점검과 특정감사, 3년에 한 번 있는 한국건강관리진흥원 평가가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번 13일부터는 현장점검 대비로 운영지원, 사업팀 모두 바쁠 예정이다.

MOU를 활성화해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최근 서귀포중학교와 체결하여 중학교에서도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상담, 진로설계 부분에 대해서 연계될 예정이다. 대정초등학교와도 MOU를 진행할 예정으로, MOU를 체결하면 학교에 위클레스 선생님, 교육복지사들이 가정에 문제가 있을시 연계해 주시는 역할도 하시고, 저희 진로 선생님들께 연계의뢰도 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교육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진행 가능할 것 같다.

오한숙희위원) 학교와 MOU를 맺어서 아이들의 봉사활동을 센터로 방문하여 할 수 있도록 해보는 것도 좋겠다. 요즘 봉사도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걸 봉사라고 할 수 없다. 센터 행사시 그들이 와서 아이들과 얘기도 나누면 나이차이도 적어 잘 통할 것이고, 남자아이들인 경우 몸으로 활동적으로 놀아줄 수도 있기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붙임

사진자료



사진 2026년 2분기 운영위원회